

동구-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시헬스케어 복합센터 조성 등 3가지 현안 중점 논의



동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지역위원회와 올해 첫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안을 논의하며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병훈 국회의원의 인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동남을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동구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원 ▲'동구청-조선대 정문 사거리' 도로 확장 관련 신속 착공 ▲인공지능 헬스케어 복합(Complex)센터 조성 지원 등 총 3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정상화, 도시재생, 인문도시 등 주요 정책들이 어려우려 동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며 "그럼에도 구도심의 지역적 여건상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상시 따뜻한 마음으로 살펴달라"고 말했다.

인택 동구청장은 "당정이 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온 결과, 동구의 가장 큰 변화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신산업 육성 등 청년들의 일 자리와 주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지방정부 '에너지 제로도시' 정책 수립을"

지스트 아카데미 포럼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강연

기후 비상사태속 지방정부는 '에너지 제로 도시'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아카데미는 26일 오희관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6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연사로 나선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1980년대에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초과됐고 그 후 40년이 지난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임을 알리며 강연을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부터 폭염, 산불, 태풍, 홍수 등 잇따른 기후 재난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최열 이사장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실행 계획이 미흡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한국 경제가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방정부, 기업, 시

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는 15분 거리 안에 생활권이 조성된 '15분 도시', 친환경 교통체계, 건물 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 제로 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기업 역시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과 사회적임, 거버넌스를 지키는 기업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시민사회는 기후 비상 시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유엔 환경 계획이 제안한 기후·환경 실천 10계명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기후환경 10계명은 ▲목소리를 내라 ▲정치적 압박을 가하라 ▲교통수단을 바꿔라 ▲전력 사용량을 줄여라 ▲식단을 바꿔라 ▲지역에서 구매하고, 지속가능 관련 상품을 구매하라 ▲음식물을 버리지 마라 ▲기후에 맞춰 스마트하게 입어라 ▲나무를 심어라 ▲지구친화적 투자에 집중하라. /권형안 기자

해남문화관광재단,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으뜸관광 행복문화 2개분과 구성...첫 회의 갖고 활동



해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3일 해남군청 중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해남이 주도하는 해남의, 해남에 의한, 해남을 위한 으뜸해남, 행복해남을 만들기 위해 민·산·학·연 문화관광의 부 전문가로 구성된 으뜸관광분과와 행복문화분과를 구성 및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로 각 분야의 군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신규시책을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다. /해남김동주 기자

정책자문위원회 첫 자리에서 △국도순례길, 달마고도, 코리아드레일(남파랑·서해랑길)을 3대 축으로 활용한 해남 트라이앵글 로드 연계 세계 최초 '해남 트레일 비엔날레' 메가 이벤트 추진 △해남에 솔자원을 활용한 '예술치유', 해남미식을 활용한 '음식치유' 등 문화치유 프로젝트 △산골어린이영화제 △전라우수영 생생문화재 브랜드 △슬물목 송어구이 축제 △팡글 글로벌 전방대 한옥호텔 건립 △채식 테마여행 시범사업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유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공정 수능'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수능 출제진에 교사 늘린다...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 전환

교육부가 수능 '킬러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출제 방식을 손질한다. 그간 출제 오류로 수능 출제 제도를 총 4차례 손봤지만, 다른 이유로 제도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71만원이 드는 중학생 EBS 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전환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수능 전문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보조리단속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방안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즉 공교육 교과과정 밖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가 지난 5월 학부모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고교생 학부모에게 가장 큰 사교육 부담이 되는 요소로 45%가 대입 수능 준비를 꼽았다.

이에 개념·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는 현장 수능의 원칙이 지켜지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전문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보조리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가정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시험 전에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문, 풀이법, 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긴다.

현재 출제위원회(교수 55%, 교사 45%), 검토위원회(전문 교사)로 구성된 출제진 구성도 손질한다.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가정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은 시도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영역별로 국·영·수는 각 3명, 탐구는 계열별 2~3명씩 꾸릴 방침이다.

현재는 출제위원단(2022학년도 기준 280명)이 출제,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단(205명)이 검토를 2차례 진행한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이 마지막 출제 오류 방지 차원에서 1차례 더 검토한 뒤 완성한다.

그간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가 대폭 손질된 것은 2005년, 2015년, 2017년, 2022년 총 4차례로 모두 1년 전 수능에서 벌어진 출제 오류가 원인이었다.

올해 22가 치를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뉴시스

사교육 경감대책	
수능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출제 배제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료 개선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고액 사교육 조정하는 허위과정 광고 등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연계 모니터링 병행
입시	대학별고사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 강화 공공컨설팅대입정보 제공 강화

전남, 벼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자연재해 대비

농·축협서 접수...벼 30일·가루쌀 내달 7일 마감

전남도가 올 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6일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조수해·화재·병충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 부담도

대폭 완화시켰다.

전남도는 농가 보험료 자기부담금 지원율을 기존 80%에서 10% 인상해 현재 9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일반 벼는 오는 30일, 가루쌀은 7월 7일까지 전남지역 농축협에서 하면 된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따른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남에선 지난해 6만5000여 벼 재배 농가(11만6000ha)에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총 543억원을 수령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

올해부터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자 책임 비율 기준을 완화했다. 또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농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지난해 전남에선 전국 평균 가입률(12%)을 크게 웃도는 6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김 호 기자

'광주역 앞서 5·18 펴냄' 전광훈 목사, 서울서 수사

광주에서 5·18 왜곡·편협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로 이관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한 고발 사건 일체를 서울 중앙경찰서로 이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올해 4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음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편협성 발언을 했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 주장도 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모자회는 지난달 초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광주경찰은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다, 전 목사를 이미 수사 중인 서울 중앙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전 목사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다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서구, 세대 아우르는 문화거점 '서빛마루' 내일 개관

지상 4층 5595㎡ 규모...문예회관·시니어센터·도서관 운영

서구가 문화·복지·교육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서빛마루'를 오는 28일 개관한다.

서구는 중앙생태체육공원에 지상 4층 5595㎡ 규모로 문예회관, 시니어센터,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28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구는 공모를 거쳐 센터 이름을 '서빛마루'로 정했다. 서빛마루는 서구의 빛과 마루의 합성어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빛마루문예회관은 300여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을 운영하며 가족뮤지컬, 피아노 독주회, 콘서트 등 지역

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뮤지컬 기초 소양교육, 가족 오케스트라 악기 교육 등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28일에는 개관 기념 첫 공연으로 우리나라 대표 뮤지컬 배우인 남경주, 정승원이 출연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서빛마루시니어센터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질병예방 등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하루 300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경문식당도 운영하고, 서구 관내를 순회하는 셔틀서비스를 운영해 이



동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곳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성균관대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가 입주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만성질환 사전예방 및 질병관리 강화를 위한 시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빛마루도서관은 독서를 위한 '책마루'와 웹·음악·소통이 있는 휴식공간 '상상마루'를 운영한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휴관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다. /조선주 기자

광산구, 장례식장 다화용기 재사용 지원사업 추진

다화용 식기·세척기 등 빈소당 최대 625만 원 지원

광산구가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장례식장 다화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취지로, 일회용품 대신 다화용기 체계로 전환을 희망하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심각해진 기후위기로 정부가 '탈플라스틱'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히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인 다화용기 재사용 체계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시설 중 하나가 장례식

장이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접시, 플라스틱 컵만 연간 수억, 수십억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 일회용품 접시 2억여 개(같은 기간 국내 전체 일회용품 접시 8억6000여 개의 4분의 1)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커피숍을 중심으로 다화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추진해 온 광산구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장례식장 업체와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다화용 식기, 식기세척기 등 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는 업체의 요구를 반영,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광산구는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총 16개 빈소(1개 빈소당 최대 625만 원 지원)의 다화용식기, 식기세척기, 식기보관함 등 사용 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장례식장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청소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7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동기 기자

북구, 구민상 후보자 접수...내달 11일까지

북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16회 북구 구민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민상은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장한 장애인 등 5개 부문으로 나뉘며 1명씩 총 5명이 받는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체육 부문의 경우, 북구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또는 30명 이상 지역주민 추천이 있어야 하며 추천서,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행정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는 현장 조사, 주민 공개 검증과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정한다.

시상은 오는 9월 열릴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다. /이동기 기자